

27회 60주년 동기 모임 글모음

27회 동기 졸업 후 60주년 행사

27회 김경수 총무 제공

Friend is One 친구는 하나.
사랑하는 모교 경북의대 최초로
졸업 후 60주년 기념행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생후 60주년이 되면
61세로서 대축제 환갑잔치를 벌리는데
우리는 26세 대학 졸업 후 60주년 환갑잔치는 86세로서
얼마나 귀하고 장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시절 진급할 때마다
친구들이 바뀌는데
우리들은 1953년 4월 6일(6.25사변중)부터
1959년 3월 25일까지 6년간 한방에서
어려운 공부들을 고생고생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희로애락을 같이한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晉(진)나라 孝武帝(효무제)때 車胤(차윤), 孫康(손강)처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문을 닦아 대성하여 봉사한
螢雪之功(형설지공)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27 친구야!

己亥年(기해년)은 60干支(간지) 중에서 36번째의 해란다.
己는 몸기, 자기 기 亥는 돼지 해. 자기와 돼지는 땅 위에
있으니 동양철학에서 땅은 황색, 천자문에서 天(하늘 천)
地(따 지) 玄(검을 현) 黃(누를 황) 하늘은 검고
땅은 노랑도다. 그래서 2019년 기해년은 누런 돼지,
황금돼지의 해 가을에 누런 눈은 황금눈발이라고 하듯
황금돼지는 복덩이가 굴러 오는 것.

돼지는 음식만 보면 앞 뒤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무조건 먹기만 하는 고집쟁이 그래서 살을 찌워서
자기 몸을 온통 사람에게 제공 봉사하는 자비로운 동물.
우리 27 친구들도 60년 전 황금돼지 해에 의사가 되어

Act with Integrity, 성실하게 행동하고

Server with Love, 사랑으로 봉사하며

Work for Peace. 평화를 위해 헌신하더니
60년이 지나 이제 86세가 되어 오늘 황금돼지의 해에
만남이 있다니 이 얼마나 축복 받은 27 친구가 아닌가?
이번 만남이 우리 人生(인생)최고의 만남이여라.
또 앞으로 만남이 있겠는가.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구나
하지만 70년도 80년도 꿈을 가져야지.
Make Dreams Real. 꿈을 현실로 노력하자구나!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유봉자원방래불역악호)
벗이 멀리서 스스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나.

부산 코모도 Hotel.

2019년 5월 11일 오후 5시

예학성 행사진행 위원장의 개회 타종과 함께

60주년 기념행사는 웃으면서 시작이 되었다.

내빈 소개로 경북의대 총동창회 회장 강인구(51회)

재부 경북의대 동창회 회장 석광호(45회)

총무 이재성(49회)

선물까지 준비하셔서 스스로 존경스러운 선배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뼈대 있는, 체통 있는 가문, 本校(본교)는

정말 자랑스러웠고 감사 하였으며 저렇게나

열심히 하는걸 보니 앞으로 本校(본교)의 빛나는 발전상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았다.

자 86세라 백발, 반 백발, 주름 잡힌 웃는 그 얼굴에
(영부인과 함께) 하지만 정말 이슬 맺힌 5월의 장미꽃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웠다.

어디선가 멀리서

La vie En Rose (장미빛 인생) (1945.11.) 샹송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껴안아 주면 나에겐 인생이 장밋빛으로

보이나니 (노래가사의 일부)

1953년 4월 6일 120명 처음으로 입학, 등교

1959년 3월 25일 108명 졸업

2009년 5월 2~3일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33명 타계

2019년 현재 47명 타계

하근수 동문이 목맨 소리로 타계한 47명의

친구 이름을 호명하며 우리들은 고개 숙여 명복을 빌었다.
속연하고도 보고 싶은 마음 금할길 없었다.

전열경 동문의 진행으로 우리 모두 26명의
그동안의 생활, 喜怒哀樂(희로애락)을 2~3분간
Speech가 약 2시간동안 흥미로웠다.
이어 미국에서 세계적인 암 학자 김재호 동문의
암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귀한 강의가 있었다.

김경수 동문은 구만리 그 먼 곳 미국에서 오신
강주안, 김재호, 반재돈, 이영기 동문에
一花天下春(일화천하춘)이라는 畫題(화제) 매화꽃 그림을
기념으로 선물하기도 하였다.
梅花(매화)는 梅蘭菊竹(매난국죽) 중에서
첫 번째 꽃으로 엄동설한 눈보라를 이겨내어 제일 먼저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고생한 의사를 상징)
一花天下春(일화천하춘)이라 한 그루의 꽃이 천하에 봄을
알리더라.(어느 마을에 의사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다는 뜻.)
文人畫(문인화)의 畫題(화제)는
自身の 識見(식견)과 思惟(사유)를 통하여 표현된다.
이것이 바로 文字香(문자향)이요
文人畫(문인화)의 화제 일 것이다.
우리 모든 의사들은 늘 一花天下春(일화천하춘) 혹은
仁術天下春(인술천하춘)의 정신으로
Be a gift to the world
세상에 선물이 되는 정신으로 살아야겠다는
설명이 있었다.

전열경 동문의 즐거운 event로
1953년 의예과 시절 김성혁 영문학 교수님께서
가끔 미국의 슈벨트 Foster 곡을 합창하였으며
연도별로 해설 하면서 피아노와 기타의 반주로서
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847년 포스터 21세 작곡한 오. 스잔나

1851년(25) 스와니 강

1852년(26) 주인은 땅 속에

1853년(27) 켄터키 옛집
1860년(34) 올드 블랙쥬
1864년(38) 꿈길에서 등등…….

피아노와 기타 2重奏로서 Alps의 yodle song
유쾌한 우유배달은 정말 산악지대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요로로로 요우우뤄 라고 경쾌하게
부르며 주고받는 것 같았다.

전열경 작시 김경수 작곡의 건강 120세의 노래는
정말 흥미로웠다.
여태껏 살고 있는 우리 61명은 노래의 가사 대로 살아
건강한 듯하였다.
술, 담배 하지 않고 식사도 알맞게 먹는 친구들만
모인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Auld lang syne
합창으로 잔을 높이 들면서
We'll take a cup o kindness yet,
For auld lang syne
오늘의 순서는 모두 끝났다.

5월 12일 코모도 Hotel에서 9시 정각 관광버스를 타고
이기대, 五六島(오륙도)를 바로 앞에서 보는 것 처음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섬이 5섬 혹은 6섬,
또 썰 물때 5섬 밀 물때 6섬이 된다.
노산 이은상의 시 五六島(오륙도) 다섯 섬이
다시 보면 여섯 섬이 하면서 우리들은 광안대교를 통과.
해운대 동백섬으로 해서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수정궁에서 점심식사, 광안대교 통과-부산대교-영도대교
지나면서 해변 구경.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송도 해수욕장 구름다리를 즐기다가
오후 4시경 부산역에서 모두 모여 껴안고
작별의 인사를 하니
La Vie En Rose.
친구들이여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우리들,
Sentimental Journey!
우리들은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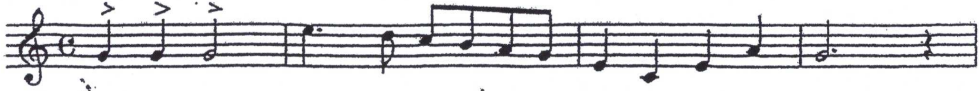
그 오랜 날이 지나면 내 어이 잊으랴
해와 달이 또 바뀌어도 내 어이 잊으랴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모하는 그대를 내 어이 잊으리.

건강 120세의 노래

경쾌하게

작사 전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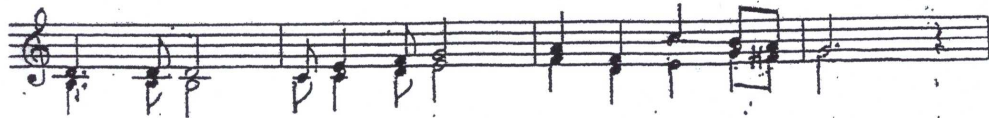
작곡 김경수



일 어 라 일 짝 이 러 나 서 웃 으 며 걸 자



낮 추 어 라 - 낮 췌 라 소 고 당 콜 우 배 람 라 라



꿈 어 라 싹 꿈 어 라 술 과 담 배 - 를



음 식 이 — 맛 있 어 도 알 맞 게 먹 자 람 라 라

- 소 = 소금
- 고 = 고혈압
- 당 = 혈당
- 콜 = 콜레스테롤
- 우 = 근심
- 배 = 뱃살

"졸업 60주년기념을 마치고,".

27회 강주안, 미조리주 샌트 루이스

나의 사주-四柱-의 생년이 1935년 乙亥年, 졸업이 1959년 己亥年, 금년 2019년이 돼지띠己亥年으로 되돌아왔다.己亥年은 황금돼지띠의 해로 운수가 좋을 것이다. 숫자 6 은 서양에서는 perfect number, number theory 로 고대 희랍에서도 알려져 있었고, 조물주가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했다고하며 Angels number 라고도 부른다. 중국에서도 六은流와 발음이 비슷하여 운이 좋은 6자로 믿고 있다. 그리고 보니 예과 입학도 66년 전이네. 점성술이나 사주팔자를 미신으로만 믿으왔지만 노쇠해가니 그런 교만성도 차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주년을 다이아몬드 에니버-서리라고 부르는데 석탄이나 숯같이 비천한 원소 이 땅속깊이 천문학적인 압력하에 비저저나와 Gold anniversary 보다 더황홀한 광체를 품고있는것같다.

명의 졸업생중 타계한 동기가 47명, 이번 모임에는 26명이 참석했다.

졸업 25주년모임에는 경주,40주년은 제주도, 50주년은 경주, 이번에는 부산에서재회의 기쁨을 나누기로 했는데 참가한 동기의 수가 기하급수로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은 안따가웠다.

약수하는 손은 힘이 빠진 것 같고, 걷는 걸음걸이도 느리기만 한데 저승에서 피는 꽃이라고 하는 senile lentigo, actinic keratosis, seborrheic keratosis 가 주름살과 흰머리보다 더 선명하게 보인다. 후두의 연골 석회화와 성대탄력성의 감소로 목소리가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고 옛날 학창시절그대로의 육성이라서 반가웠다.

얼굴을 통 알아볼 수 없게 변한 친구가 몇몇있다고 들하는데, 나는 다알아보았지만 늦게 들어온 친구와 악수를 했는 지 기억이 없어 옆에 앉은 동기에게 문의하니 얼마전에 그와 악수하는 것 보았다고 한다. 그래도 의심적어 가서 악수하면서 이번이 처음이냐 또는 두 번째 악수냐고 물으니 처음이라고 대답한다. 누구의 기억상실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

뒷 쪽옆편에 앉은 친구 오래전부터의 추억을 나누고자 하든차 이번에서 기회가왔다. 예과 2년 어름방학을 맞아 새벽일 짝 시골고향으로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대신동으로 가는데 약전골목앞길에 파자마바람으로 일본식나막신을신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메로디는 드볼작의 교향악 신세계중, 4악장의 주제.

어두운 새벽이라 인사도 없이 지나가버렸는데 이번에 그 메로디를 humming 하면서 물어보니 기억못한다고 한다. 나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푸짐한 저녁식사와 酒神Bacchus 의 도움으로 노래자랑과 자기소개가 있었다.

김경수군의 기-타 독주와 반주는 60년 전과 변함없이 흥을 도두었고, 학기말 시험후 현금없이 기-타 맡기고 막걸리마시든 시절을 회상하는 Pathos! 자선사업을하는친구의 삶의 보람도 가까히서 느낄 수 있었다. 衣-수의-shroud는 호주머니가 없는데 빈손으로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실정. 가져갈수있는것은 살아 있을 때 쓴 자선 사업의 돈이라고 하는 펠샤의 격언을 기억한다. 아렉산더 대왕의 유언에 죽어서 곱에 넣을 때 곱바갈에 빈손이 보이겠끔해달라고부탁했다고한다.어떤친구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찾아 여행했다는 이야기, 투병하여 새로운 삶을 찾은 친구, 아직도 병원, 양로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쁨을 나누는 친구들이 많은데 , 그것은 꼭찬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찾은 때보다와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다. 서예의세로운 취미로 잠을 슬치는 친구도 부럽다. 자랑스럽게 살지 못하면 자랑스럽게 죽어라고 한 니-체의 건방진 말 대신 모두들 멋지게살고 있는데 감복한다. 이젠 자랑할 것도 없다. 우리얼굴의 주름살은 달려온 생애의 하이웨이이니 감출이유가없다라고한 어느 의사는 비껴그리는 무릅관절에 윤활유를 쳐서 젊은 처녀와 춤을 추라라고 한다. Shaw 의 묘비에 “우물주물 하다가 언젠가 이럴줄 알았다” “ぐずぐずしていたらこんなことが起きるだろうと知つていた”라고 새겨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익살스러운 해석, 원문은 “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this would happen”오래 살다보면 이럴줄 알았다,본뜻에 더 충실할 것 같다.

다음날은 아침식사 후 부산관광. 오륙도, 동백섬, 해운대해수욕장, 태종대 등등, 점심과 관광은 동기하나의 부담으로 고마웠고 점심식당에서 합창으로 “Sah ein ein Rsllein stehen Rsllein auf der Heiden” “Ich hatte einen Kameraden” “Auld Lang Syne”으로 끝났다.

몸이불편하여 참석못한 대구친구, 만나지못할줄로만 알았는데짧은 시간이었지만 점심을같이했다. 언어장애와 얼굴표정이굳은 그였지만 예과시절때함께읽던 일본작가夏目漱石 , 등이야기에 얼굴표정에 희색이만면하고 고개를꺼덕이면서 기쁘하는데 눈물겨웠다. 이번 동기회모임에온 보람을 골수깊히사킨다.

모인것같으나 너무나 신기로운것같아 더부쳐쓰기로했다. 대구 친구집에서 머무른동안 새로산 LP vinyl discs와 turn table로 압축된 디지털 씨-디보다 부더러운 진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 친구, 우연히 뽑아낸 판에 Chopin 의 Impromptu 가있어 함께 감상했는데 집에 도착한 후 몇 일 되어 부산 동기가 유추-버에서 같은 곡을 메시지 ?스트로 첨부해왔었다. 60년전, 그러니까 졸업하기전 겨울, 이곡을 나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부터의 Telepathy? psychology, animal magnetism, 등 모두 pseudoscience라고 비난받는데, 호랑이가 제말하면 나타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은 세계 각국에다 있고 우연으

로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현상. 양자학에서의 Quantum Entaglement를 Spooky 하다고한 아인슈타인이 생각난다.